

촛불민심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 새정부 과제

국민통합·외교안보·경제위기 등 해결과제 '산적' 국론분열 해소·여소야대 극복...협치·연정 시험대

'문재인 시대'가 9일 문을 열었다. 조기 대선으로 9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등으로 무너진 나라의 공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범쪽 선 국정을 본격적으로 올려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시대의 개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쓸쓸한 퇴장'으로 권위주의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자리에 국민주권주의가 위력을 발휘한 새로운 시대가 움을 띄웠다. 이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팎으로 처한 현실은 엄중하다. 탄핵과 조기대선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념·세대 간 국론분열은 이른바 '촛불'과 '대극기'로 상징되며 갈수록 심화되고, 안보와 외교, 경제위기라는 '삼중고'가 출범부터 새 정부를 옥죄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반대정파를 끌어들이며 개혁입법과 예산처리 등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협치와 연정의 시험대에도 올라서 있다.

문 대통령의 승리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진영에 정권을 내준 9년 2개월여 만에 집권세력의 위상을 탈환했다. 민주당 정부의 제정권은 지난 보수정권 시절의 정책 및 국가 이념과 리세팅을 포함한 국정전반의 대변화와 대수술을 필연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보수진영과 기독교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발전적 승계를 위한 '민주정부 3기'의 밑그림을 그려 가야 한다.

'이제 나라'는 광화문 광장의 함성으로 시작된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문 대통령이 붙잡고 있던 화두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다. 그만큼 집권 후 최대과제라는 얘기가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6년 공약집에서 '적폐청산 특별조사 위원회' (가칭) 설치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을 '공약 1호'에 올리는 등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대선초기의 '대정소' 표현은 '대개조'를 거쳐 '국가대개혁'으로 옮겨가는 등 특징인 또는 특정세력의 인적 청산보다는 시스템

의 근본적 개선 쪽에 방점이 찍히는 듯한 흐름이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걸친 할 두 축으로 제시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에 대한 절묘한 균형을 이뤄 가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도 향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통합이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 불법과 불의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포용과 통합이 아니다. 개혁을 시작해야 국민통합도 완성된다"며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해 왔다.

"집권하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 대량 인사로 능력있는 분들을 모시겠다. 합리적인 진보부터 개혁적인 보수까지 다 함께 할 것"이라며 대통령정부 카드를 꺼내는 한편으로, 당선되면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의 절박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비롯해 87년 헌법 체제 손질이 새 정부의 뚝으로 넘어온 가운데 국민적 공론과 제정파의 합의를 모아가면서 '개헌과포'를 순탄히 넘을 수 있을지도 문 대통령에게 놓인 숙제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처자고 공약한 가운데 반대정파에서는 정권초기부터 개헌을 고리로 새 정부의 힘을 뺏 공산이 작지 않아 보인다.

'준비된 대통령'을 내건 문 당선인이지만, 안보와 외교, 경제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전임 정부가 배치를 강행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10억 달러 비용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경제적 보복에 나선 중국의 탐바구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태다. 여기에 북한 도발 가능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대처와 한일위안부 문제 등 어떤 외교·안보 현안 하나 복잡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한미동맹 공고화를 포함,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익과 실리를 취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 마련된 국민의당 선대위 대표상황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 대표상황실을 방문,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이면 당을 재건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히고 상황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선거결과 수용...한국당 복원에 만족" 안철수 "국민선택 겸허 수용"...대선패배 승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홍 후보는 9일 "이번 대통령선거는 출구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한국당을 복원한다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구조사 때는 한 17% 차이가 났는데 지금 보니까 10% 포인트 줄어서 8~9%포인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이번 선거결과는 수용하고, 한국당을 복원하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회견 도중 무거운 표정으로 잠시 말을 멈추는 등

침울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회견장에 모인 일부 지지자는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 3일이 걸려도 수계표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안타까워했다.

안 후보도 이날 대선결과와 관련,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해진 오후 10시 35분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련된 대표상황실을 방문,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대선패배를 사실상 인정하며 결과가 승복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지지자들의 질문에 "10일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 출국계획을 묻자 고개를 숙이며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문재인 승리 요인 뭘까?

'국정농단 사태' 국민 정권교체 열망 폭발 구 여론 민심이반...보수정당 분열 표 분산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이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 2개월여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것이며,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내주고 야당으로 전락하며 뼈아픈 패배를 하게 됐다.

문 대통령으로서 2012년 18대 대선패배 후 제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승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가 불러온 조기대선 정국에서 구 여론에 대한 극심한 민심이반과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대선 판도를 좌우할 중도층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수정당에 등을 돌린 데다 보수층 역시 보수정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면서 표가 분산된 점도 문 대통령이 승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적폐청산과 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내건 '문재인 시대'가 도래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걸쳐 대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통한 화해와 치유를 통해 국민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사상 최초로 이념·세대·지역을 뛰어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선대위에도 통합정부위원회 구성한 바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경기침체와 북핵위기 등 내외외환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도 없이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해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151석)에 턱없이 모자라는 120석에 불과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느 때보다 협치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문재인, 승리 선언했다" 주요 외신들 일제히 신속 보도

주요 외신들은 9일 실시된 한국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AFP통신은 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승리선언을 한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 51분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문 당선인의 발언을 가장 먼저 타진했다.

AFP는 이번 대선에서 압승한 문 당선인이 광화문 광장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진보적인"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면서 그의 승리는 10년에 걸친 보수의 집권을 끝내고 핵 무장한 북한에 대한 최근 정책의 급격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패배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적용시 131만원 보조금(본인부담10%)

철저한 독일의 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다채널 방식 / 100%디지털 고막형◆

- ▶ 전화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반영구적입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밑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청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고급보청기 성능으로 관개하여 보청기 성능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진로15길 건너편 6층 (중정빌딩 603호)

HP 010-3634-0777

☎ 02-222-1510 아간 ☎ 02-573-5106

투자자 모집

희망과 열정으로 미래의 세계적인 골프 스포츠기업으로 성장가능한 SR30 제일에스티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비전을 함께 나누실 투자자 몇 분만을 모집합니다.

- 설립년도: 2006. 2. 1
- 품 목: 골프 및 스포츠 레저용품, 골프공, 용품
- 거래현황: 現신세계백화점 및 전국 300여 곳 · 특허 및 재산권 다수보유 등록
- 후원 및 협찬 광고내용
KBC 고교동문골프대회, 전남일보 전국학생골프대회, 전남일보 아마추어골프대회, 전남매일 시니어골프대회, 광남일보 아마추어골프대회, 매일경제, 동아일보등 일간지 광고

- ▶ 투자금 모집액: 3억원
- ▶ 투자 가능금액: 5천 ~ 3억원
- ▶ 담보설정: SR30 사업권 및 특허 재산권 공증
- ▶ 수익성: 연 12% (매월 확정 지급)

TEL. 062) 671-5447
H.P. 010-5681-8084
E mail : pjmhjom@naver.com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로 49번길 34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급매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제일 오피스텔
- 20층중 17층, 29평
- 사무실전용, 전망최고
- 내부 인테리어 시설
- 시세 - 8500만원
- 급매 - 5500만원 (일시불 조건)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3605-5000